안산상공회의소	報道資料	담당부서	교육통상팀
2026년 11월 13일(금) 배포 시 보도 요망		담 당 자	팀 장 채 선 기 담 당 서 윤 우
		전화번호	070-4571-5802

본 자료는 안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ansancci.korcham.net) ▷ 새소식 ▷ 보도자료에 수록되어 있음.

안산상공회의소,
『제173회 최고경영자 강연회』 개최

- 김영익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 초청

- '2027년 글로벌 경제전망 – 불확실성 시대의 생존과 도약' 주제 강연

안산상공회의소(이하 안산상의)는 11월 13일(금) 그레이트홀에서 『제173회 최고경영자 강연회』를 개최했다. '2027년 글로벌 경제전망'을 주제로 김영익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를 초청한 이번 강연회는 안산 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장・단체장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권혁석 안산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과 물가·환율 변동성은 여전히 기업 경영의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다가오는 2027년의 거시경제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넘어 생존을 넘어 도약할 수 있는 통찰과 전략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영익 교수는 2027년 글로벌 경제의 거시적 흐름과 국내외 주요 경제 지표 전망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부채 누적과 미국 주식·주택 시장의 거품 붕괴 가능성, AI 투자에 따른 자본·신용 문제 등을 짚으며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언급하고, 국내 경제 역시 경기선행지수의 하락 전환에 따라 내년 경기 수축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음을 진단했다. 아울러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 잠재성장률 하락과 양극화 심화에 대응해 기업들이 거시 환경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현금 흐름 확보 등 재무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익 교수는 "내년은 경기 수축 국면에 대비해 기업 목표와 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며 "변화하는 산업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해 생존을 넘어 번영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안산상의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최고경영자 강연회'는 기업 CEO를 초청하여 경영 관련 이슈 분석 및 전략 제시, 인사이트 확장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1989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붙임. 행사 사진. 끝

붙임.『제173회 최고경영자 강연회』사진






2027년 글로벌 경제 전망
불확실성 시대의 생존과 도약
김 영 익
2026. 11. 13. (금) 07:00
김 영 익